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성군이 다스리는 나라는 없나

잉어를 화폭에 담은 그림 약리도(躍鯉圖)

어릴 적 충남 부여(扶餘) 쌍북리에 있는 조룡대(釣龍臺)에 얽힌 백마강(白馬江)에 관한 전설을 들은 적이 있다. 조룡대는 한 사람이 겨우 앉을 만한 크기의 작은 바위이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함락한 어느 날, 대왕포(大王浦) 하류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 바위나루(구암진, 窺巖津)를 지나 낙화암(落花巖)까지 정박해 있던 수백 척의 당나라 병선이 갑자기 전복하고 말았다. 소정방은 갑작스런 괴변이 왜 일어났는지를 천지를 관측하는 관상관(觀象官)에게 물었다.

관상관이 말하기를, 이것은 백제를 지키는 호국룡인 강룡(江龍)이 백제가 정벌당한 것에 진노해서 당나라의 군선들을 파괴한 것이라고 하여, 강룡을 제어할 방법을 묻자, 백마를 잡아 그 머리를 미끼로 해서 잡으면 된다고 권고했다.

그래서 소정방은 쇠줄로 낚시줄을 만들고, 말 머리를 미끼에 꿰어 백마강에 낚시를 드리우자 말고기를 좋아하는 용이 그 미끼를 물어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훗날 사람들은 그 바위를 조룡대라 이름 짓고, 금강(錦江)의 줄기인 부여 부근 일대의 강을 백마강이라 불렀다는 고사(故事)가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여현(扶餘縣) 고적조(古蹟條)에 전한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자로 적을 때 '어룡(魚龍)'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소정방이 어룡을 낚은 것을 뒷날 잘못 전하여 용을 낚았다고 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들이 많다.

또 다른 전설은 일제시대 조룡대에서 낚시를 하던 마을 사람이 커다란 잉어를 낚아서 팔기 위해 지계에 지고, 장모로 팔러 가는 데, 다른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칭찬하고, 어디로 갔고 가느냐고 묻자, 놀람게도 지계에 얽힌 물고기가 장에 팔려간다고 스스로 대답하자, 지고 가던 낚시꾼이 깜짝 놀라서 다시 강에 가서 놔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야사(野史)에 의하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자결한 시종무관장 민영환(閔泳煥)의 집 정원에 는 오래된 연못이 있었는데, 백년이상 나이를 먹은 늙은 잉어가 몸에 수풀을 붙이고 이리 저리 헤엄치고 있었다고 한다.

잉어가 붕어와 다른 점은 몸에 십자문(十字紋)의 비늘이 있고, 입에 두 쌍의 수염을 달고 있는 것이 큰 차이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徐有榘) 선생이 쓴 어류학(魚類學) 책인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는 리어(鯉魚)라고 하였으며, 본문 가운데 '어명고(魚名攷)에 잉어가 십자 무늬(文理)가 있기 때문에 이(理)에서 리(里)를 취해 어(魚)와 덧붙여 리(鯉)자를 만든 것이라 설명한다.

잉어는 동양에서도 오랫동안 양식을 한 기록



약리도(躍鯉圖)

약리도는 황하 중류 용문 설화 근거 중국과 달리 한국 약리도엔 태양이

이 있는데, 그 역사가 오래되어서, 기원전 약 500년경의 중국문헌 양어경(養魚經)과 우리나라의 문헌에도 잉어 양식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약리도는 황하(黃河)의 중류인 산서성(山西省) 하진(河津)에 위치한 용문(龍門)이라는 곳에 얽힌 전설에 근거한다. 수많은 잉어들이 모여 거센 물살을 헤치고 용문이라는 바위를 넘으려 하는데, 넘는 잉어는 용으로 변해(어변성룡, 魚變成龍) 하늘로 승천하고 오르지 못한 잉어는 떨어져 죽거나 하는 이야기가 바로 유명한 등용문(登龍門)의 고사이다.

한국의 약리도가 중국과 다른 점은 바다에 뜬 태양을 그린다는 점인데, 태양은 아마 성군(聖君)을 상징하는 듯 하다. 우리 나라 만원권 세종임금 뒤에 그려진 일월곤륜도(日月崑崙圖)의 해와 달이 임금과 왕비를 의미하며, 그림병풍만 있을 때는 그림이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인금이 앞에 있어야 완성된 그림으로 본다는 재미있는 말이 있다.

어쨌든 태양과 같은 성군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극락세계 뿐일까?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산사의 아침



안개가 숲을 깨운다. 잠들었던 나무와 풀들이 눈을 뜨고, 어둠에서 잠을 깬 산새는 지붕 위에서 아침을 기다린다. 새벽종이 닦아놓은 마당으로 아득하고 아득했던 태양이 다가온다. 산사에서 잠을 깬 어느 날 아침. 빈손의

아침은 영화로웠던 어제보다 컸고,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지붕 위의 산새가 곁에 없는 도반보다 가까웠다. 먼 길을 왔어도 다시 가야 할 길이 있고, 백발 번 짙을 하고도 부처님은 볼 수 없었던 그 아침. 그렇게 산사에서 맞은 아침은 어쩌다 낯 뜨거웠다.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야 하는 시간. 삶을 이어가야 하는 소중한 순간이다. 안개 속의 나무와 풀도, 지붕 위의 산새도, 멀리 있는 도반도, 모두 아침을 맞았다. 외면할 수 없는 삶, 그 속에서 또 한 번 피할 수 없는 시간. 아침. 산사의 아침은 그렇게 '나'를 깨웠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강상 조선 무용수연 선사의 '또 강남군수에게 드림[又呈江南府伯]

무용(無用)의 대용(大用)

吾觀萬物不齊也 (오관만물부제야)
太岳秋毫各具天 (태악추호각구천)
鳧鶴短長誰使爾 (부학단장수사이)
鸚鵡黑白亦如然 (구오흑백여연)
夢中說夢眞堪笑 (몽중설몽진감소)
牛背尋牛不足言 (우배심우부족언)
高下從來無二矣 (고하종래무이의)
古人曾已詠魚鷹 (고인제이영어연)

내 보니 만물 똑같지 않아
태산과 가을 털 각기 천성 갖추었네.
오리와 학 짧고 김 누가 그리 시켰나
갈매기와 까마귀 검고 흰도 그러하네.
꿈속에서 꿈 이야기 정말 웃기는데
소타고 소 찾는 것 말할 것 못되네.
높고 낮음 본래 둘이 없기에
옛 사람 이미 고기와 술개를 읊었네.

부처님은 "본 것, 배운 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집착한 나머지 그 밖의 다른 것은 모두 뒤떨어지고 집착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물며 품 받은 천성을 두고 호오(好惡)나 우열을 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저 길가를 굴러다니는 돌이나 깊은 산속 자라고 있는 이름 모를 풀잎 하나라도 각각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아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유가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연은 우리의 모습

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자연스러운 천성이기 때문이다.

이 시는 역불이 자행되던 당시 위정자에게 자기의 색깔을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자연의 진리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적 차별이 자행되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 것이다. '차이'는 종교적 이념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닌 세계가 이루어진 이치, 인간과 인간, 동물이 어우러져 살아가게 된 자연의 이치 그것뿐인 것이다. 종교적 이념은 그 이후의 일임 있어서는 안 된다.

무용수연(無用秀演; 1651~1719) 스님이 남에게 별로 가르쳐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자가 쓸모없게 된 이유라고 자신의 호를 설명한 것처럼 진정 무용(無用)의 대용(大用)을 보여 주었다.



원법 스님(은문사 중강·조계종 교수사리)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촉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낚시,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징

-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 코팅 광택약이어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셔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동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웅

영일상사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고급 뿔나무 재질, 울칠 마감,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규격: 大 / 中 / 小의 다양한 규격

특대제사용위패(가정용)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색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색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